

행정중심도시 건설에 따른 충청권 지역구조 변화와 발전전략

최원희

(공주대학교 교수)

1. 충청권 지역구조의 현상

현재의 충청권은 천안-청주-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축과 서산-아산-천안-충주-계천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축이 천안을 매개로 결합된 T자형 도시축이 발달해 있다. 이러한 T자형 도시축은 기본적으로 충청권 산업단지의 입지와 관련되어 있다. 최근에 서해안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축이 형성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도시 입지패턴은 여전히 T자형 도시축으로 요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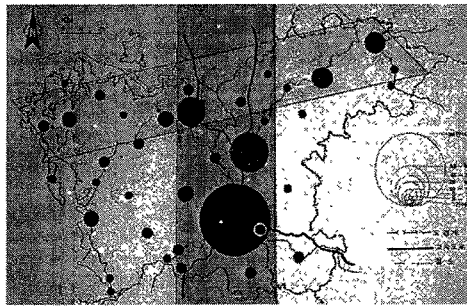


그림 1. 충청권 도시의 규모별 공간분포 패턴

자료: 주경식, 2003,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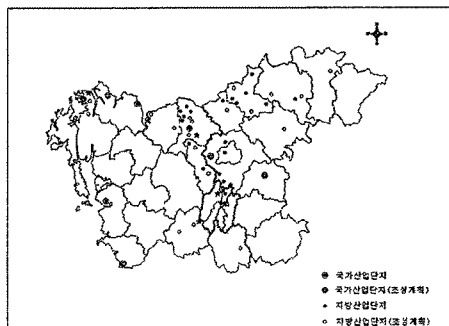


그림 2. 충청권 산업단지의 분포

자료: 김학훈, 2003, 219.

2. 행정중심도시 건설에 따른 충청권 지역구조의 변화

한편, T자형 도시축은 장차 I자형 도시축으로 변환될 가능성이 큰데, 이는 수도권에 연결해 발달한 충청권 북부의 서산-아산-천안-충주-제천 도시축이 본래 수도권 지향성과 연계성이 큰데다가 최근 개통된 경부고속철도의 영향과 공주-연기지구에 건설될 행정중심도시의 영향으로 인해서, 인구와 기능의 일부가 천안-행정중심도시-청주-대전 도시축으로 이동하면서 상대적으로 쇠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부축 중심의 I자형 도시축은 충청권 및 국토의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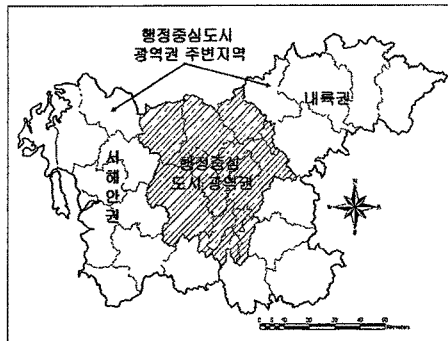


그림 3. 행정중심도시 광역권 및 주변지역의 구분

I자형 도시축의 하나의 가능성은 I자형 도시축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도시체계화 된 새로운 광역도시권이 형성되고, 이 새로운 광역도시권이 충청권의 서해안권과 내륙권의 발전을 선도하고, 나아가서 이를 기반으로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한 것으로 간주된다.

I자형 도시축의 또 하나의 가능성은 I자형 도시축을 기반으로 네트워크화 된 새로운 광역도시권이 형성되고, 이 새로운 광역도시권이 충청권의 나머지 부분인 서해안권과 내륙권의 인구와 기능을 흡인하여 보다 강력한 거대도시권으로 성장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전자의 가능성보다 상당히 클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I자형 도시축의 후자의 가능성, 즉 서해안권과 내륙권의 희생하에서 I자형 도시축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광역도시권이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경우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3. 행정중심도시 건설에 따른 충청권의 발전전략

충청권이 I자형 도시축의 광역도시권과 그 주변의 서해안권 및 내륙권이 균형발전 될 때, 비로서 충청권이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충청권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의 성장거점전략, 네트워크 도시체계 도시전략, 개성화전략 등이 상호보

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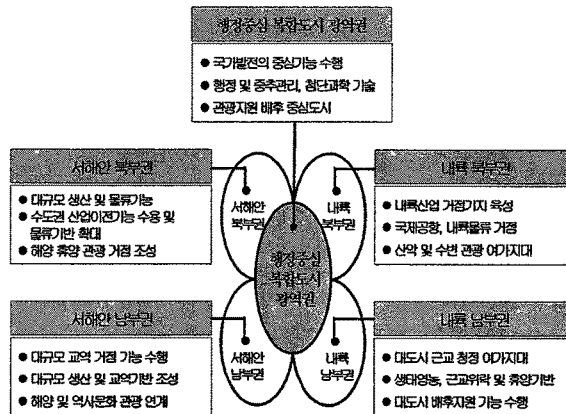


그림 4. 충청권 공간개발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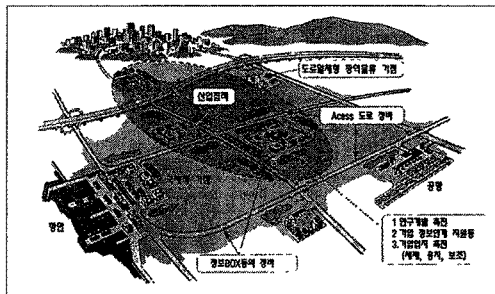


그림 5. 집적지간 연계네트워크 구축 예시도

성장거점형성전략은 행정중심도시, 대전, 청주, 천안 등의 도시로 이루어진 행정중심도시 광역권의 일방적인 흡인력에 대응하여 서해안권과 내륙권의 일정지역에 성장거점도시 내지 성장거점도시권을 육성하고, 기존 중소도시의 재활성화를 통해서 중심성을 확보하며, 신활력 도시 등 다양한 신개발방식을 도입한다. 네트워크 도시체계전략은 산업적 측면에서 소중역, 광역 및 초광역의 지역혁신체계 형성, 격자형 고속 교통망 구축, IC 연결부 개발 등 새로운 활력거점의 창조 등을 포함하며, 상호연계를 통한 네트워크의 효율성과 범위의 경계를 확보 하려는 것이다.

개성화 전략은 지역문화권 육성, 특화관광자원 개발, 농산어촌 신자원 활용 등을 포함하며, 이는 충청권의 자연, 인문, 사회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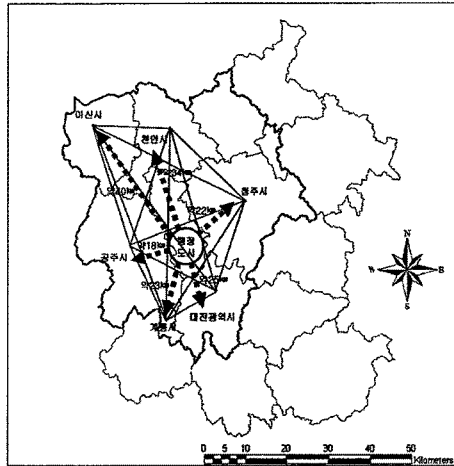


그림 6. 행정중심도시 광역권의 네트워크 도시체계

위와 같은 성장거점개발전략, 네트워크 도시체계전략 및 개성화전략에 의거하여 충청권의 균형발전전략을 설정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충청권을 행정중심도시 광역권, 서해안권 및 내륙권으로 구분하고, 행정중심도시 광역권은 정치, 행정 및 중추관리기능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체계화 하고, 행정중심도시 광역권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서해안권 및 내륙권은 각각 특정 성장거점도시나 성장거점도시권, 공공기관,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육성과 기존도시 특화, 기성시까지 활성화 등의 단계를 거쳐서 네트워크 도시체계화 하고, 궁극적으로는 행정중심도시권, 서해안권 및 내륙권을 상호 간의 기능적 보완성에 기초하여 하나의 통합적 네트워크 도시체계로 연계시켜서, 충청권을 자율적 경제권역으로서의 세계도시지역으로 진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될 때, 비로서 충청권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나아가서 동북아 경제권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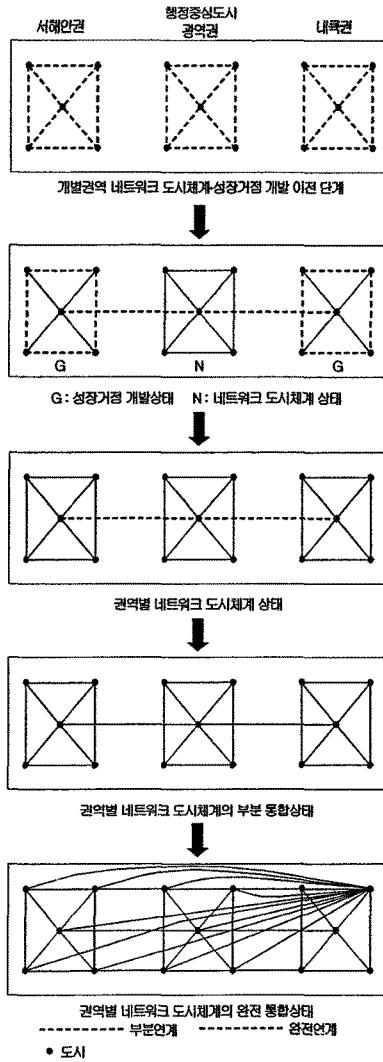


그림 7. 충청권 네트워크 도시체계의 발전전략모형